

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, 의약품·농식품·ICT 분야 수출영향점검 및 지원방안논의

정부는 5.22(목) 14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(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)를 개최했다.

* 참석자: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(주재), 과기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해수부·중기부·고용부·금융위 등

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·농식품·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 의약품의 경우 제약·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.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,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('24년 기준)인 동시에 K-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, 금융·바우처·마케팅·보험·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. 「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」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·기계·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, 계약 지연·보류·취소, 원자재 등 비용 부담,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

등 고충을 파악했다.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, 기업 애로 발굴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지속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귀범 (044-215-2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민 (jeeminkim@korea.kr)
			사무관	조선훈 (whwns56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신 (justice6589@korea.kr)

